

技術導入 積極적 進出

— 食品製造技術 정보 導入 이 래 8百여건 도입 —

車 和 俊

(企劃院 經濟協力局長)

技術導入은 先進國이나 開發途上國을 불문하고 技術革新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으며, 이는 나아가서 一國의 經濟成長이나 발전에 中樞的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든 국가가 과거 어느때보다 技術導入과 개발을 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5년간 3차례의 經濟開發 5年計劃을 통해 많은 기술적 진보가 있었지만 날로 高度化해 가고있는 국제산업사회에 優位的 位置에서 경쟁에 대처하기 위해 그동안 自體기술개발이나 연구개발보다 適正한 先進技術을 도입, 이를 활용할 수 밖에 없었다.

원래 先進國의 경우는 고도의 기술이나 새로운 尖端技術을 개발하기 위해 막대한 개발 비용을 감수하면서 기술개발을 시도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때는 이미 개발된 기술을 도입, 落後된 분야의 기술을 改良하고 補強하여 自國의 輸出産業의 국제경쟁력을 提高시키는 수단으로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

한편 開發途上國은 자체의 기술개발 또는 研究開發 활동이 容易하지 않기 때문에 해외의 先進技術을 도입 消化하는 것이며, 이는 技術革新으로 연결되어 先進國과의 技術격차를 줄이고 경제발전을 이룩하는데 중요한 추진력이 되기 때문에 加一層 도입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開發途上國은 先進國이 開發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工業化에 뒤늦게 등장한 소위 레이트 커머의 利得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발전의 성공사례를 우리는 이웃 日本의 公업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日本은 2次大戰 이후 75년말까지 총 1만6천6백92件에 달하는 막대한 量의 기술을 도입, 이를 잘 소화 흡수하여 오늘날 經濟大國을 이룩하였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기술도입은 62년에 처음으로 食品會社가 食品製造技術정보를 도입한 이래 지금까지 (77년6월30일 현재) 총 7백

86件에 불과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代價支拂額도 1억3천2백만달러에 머물고 있어 日本의 63년 當該年度 代價支拂額인 1억3천6백60만달러를 하회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특히 62년부터 지금까지(77년6월30일) 우리나라의 國別 技術導入의 代價支拂金額을 보면 日本에 偏重(57%)되어 있는데 앞으로 美國과 歐洲제국으로 技術導入先을 전환 多邊化하는 노력이 더있어야 할 것이다.

근래 우리나라도 産業構造가 고도화됨에 따라 産業技術이 생산요소로서 차지하는 比重이 날로 높아가고 있으므로 정부는 낙후된 分野의 技術을 보완하고 필요 技術을 습득하고자 적극적으로 技術導入을 권장하고 있다.

즉 技術을 도입한다는 것은 外國으로부터 그의 工業所有權, 노하우(産業秘方)의 實施權등을 부여받는 것으로서 이에 代價支拂이 수반되므로 정부는 外資導入法을 운용, 技術의 도입자 및 제공자 쌍방에 혜택을 주어 先進技術의 과감한 도입을 서둘러 주고 있는 것이다.

최근 世界 技術貿易의 현황을 보면 技術貿易 측면에서 出超國은 美國과 英國이며 入超國은 西獨, 프랑스, 日本 등인데 西獨, 프랑스는 日本보다는 그 幅이 작다. 특히 日本의 경우 導入技術의 50% 이상이 美國의 技術이며 나머지는 西歐로부터 도입함으로써 日本이 技術貿易面에서는 큰 赤字를 안고 있다.

따라서 日本도 歐美先進國처럼 技術개발과 연구개발에 더욱 역점을 두고 있다.

앞으로 우리經濟의 국제화 과정에는 허다한 制約要因이 예견되고 있으므로 오늘의 우리 産業構造나 技術수준으로 볼때 하루빨리 技術革新을 통해 國際競爭力을 제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急先務이므로 장기적으로는 자주적인 技術開發을 추진하는 한편 우선은 外國의 최신

의 우수한 技術을 적극導入, 이를 소화활용하면서 技術의 土着化를 기하여야 한다. 이와같은 技術導入의 선택과 결정은 企業의 자율적인 判斷에 맡기는 체제로 이행할 시기에 왔다고 생각되므로 정부는 技術導入의 단계적 自由化를 서서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과거 日本이 64년 4월에 OECD에 가맹함으로써 同機構의 규약의 하나인 「貿易去來法の 自由化措置」에 따라 68년 6월 1일에 第1段階 自由化조치를 실시하였고, 그후 OECD의 강력한 권고에 의거 72년 7월 1일부터 航空機, 武器, 火藥, 原子力, 宇宙開發등 主務部長官의 통고가 있으면 必要措置로서 유보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分野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技術導入은 日本銀行에서 自動認可할 수 있도록 하였고, 石油化學의 誘導品, 電算機 및 同應用製品의 製造技術은 73년 초 또는 76년 말까지 잠정留保, 그후 自動認可할 수 있게 하였다. 이렇게 日本의 自由化 경위를 볼때 OECD加盟에 따른 義務履行의 수단으로 10여년 동안 서서히 단계적으로 自由化를 實施하였다.

自由化 實施時期의 日本의 經濟指標를 현재 우리의 指標와 비교하여 볼때 技術導入의 自由化는 다소 時期尙早인 것 같으나 점진적으로 이와같은 조치를 취하여 갈수 밖에 없고 그 구체적 범위와 내용은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이 스스로 技術의 중요성을 깊이 認識해서 향상 欲의 技術을 도입 模倣하는데 만족하지 말고 독자적으로 소화改良하며 개발하는 技術蓄積體系의 확립이 技術革新의 捷徑이 된다는 것은 再言을 요치 않는다. 또한 이와같은 技術의 과감한 導入, 活用, 土着化를 뒷받침하기 위하여는 技術人力의 개발에 보다 많은 投資가 先行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두고자 한다.